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대한 중간평가”를 읽고

김민혁*

영국의 시사주간지 『더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는 지난 6월 11일자 기사 “유엔 사무총장: 중간평가”(The UN's secretary-general: The score at half-time)를 통해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첫 번째 임기에 대한 중간평가를 내렸다. 이 기사의 내용은 한국의 주요 일간지 등을 통해 소개된 바 있으며, 여기에서는 『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내용을 소개하고 그에 대한 코멘트를 덧붙이기로 하겠다.

초대 유엔 사무총장이었던 리 총장은 그의 후임자에게 이 직업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직업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때 이후로 유엔 사무총장이라는 직업은 더욱 힘든 직업이 되었다. 8대 유엔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반기문 총장은 그의 첫 번째 임기인 5년 가운데서 절반을 보내고 있다. 그는 분쟁과 불협화음으로 가득한 국제사회 속에서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목소리를 의미 있는 외침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그는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두 번째 임기도 맡을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가 과연 두 번째 임기를 맡기에 적합한가에 대하여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 서울대 정치학과 석사과정

유엔 사무총장은 “인류”(We the peoples)를 위하여 각국 정부들(특히 대국들)로 하여금 그들의 고결한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권위 있는 발언을 하도록 기대되는 자리이다. 반 총장의 전임자였던 코피아난 전 총장도 한때 “세속의 교황”으로 찬양받으면서 유엔의 구호를 필요로 하는 이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대변한 바 있다.

반 총장은 성실하고 근면하며, 조심성 많은 이미지이다. 실제로 반 총장이 2007년 유엔 사무총장에 선출된 이면에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정치적 고려가 있었다. 그들이 반 총장을 내정한 것은 그가 결코 위협을 무릅쓰면서까지 자기주장을 내세우는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같은 결정은 많은 이들을 실망케 하였다. 왜냐하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secretary-general)은 “총장”(general)보다는 “비서”(secretary)에 가까운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성과에 대해 평가해보자.

• 권력에 대한 진실성: 3점 (*10점 만점)

(만약 그것이 잘 되지만 한다면) 그의 “조용한 외교” 스타일도 나쁠 것은 없다. 그러나 그의 조용한 외교 스타일은,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건을 제외하고는 그다지 성공적이지 못하였다. 그는 너무 쉽게, 너무 자주 고개를 숙인다. 반 총장은 짐바브웨의 독재자, 무가베 대통령에 대해 강한 발언을 한 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거친 반발이 되돌아온 이후에 (내부인에 따르면) 반 총장은 그를 화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극도로 신경을 썼다. 마찬가지로 반 총장은 발끈 화내는 경향이 있는 러시아인에 대해서도 강한 발언을 극도로 삼갔다. 반 총장은 재선을 희망한다. 이를 위하여 그는 수많은 곳을 방문하고, 수많은 이들과 악수를 나눈다. 다른 한편으로는 중국과 미국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에 대해 매우 우려한다. 그래서 그는 중국의 다르푸르 분쟁,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분쟁에 대해 고개를 숙인다. 또한 중국과 인도 등의 비호를 받는 스리랑카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반응을 자제

한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여러 인권 단체들은 반 총장이 희생자 편에서 보다 목소리를 높여주기를 바라고 있다.

• 거시적인 상황파악: 8점 (*10점 만점)

반 총장은 일찍이 기후변화 의제에 우선권을 두었고, 이를 위해 각국 정부들 간의 합의도출을 위한 노력에 앞장섰다. 또한 반 총장은 식량위기가 발생하자마자 신속하게 세계은행과 세계식량계획 등의 국제기구들과 협력하여 대책을 마련해냈다. 그러나 금융위기는 또 다시 유엔의 위치를 바깥으로 내몰았다.

• 평화유지: 6점 (*10점 만점)

세계의 많은 분쟁에 대하여 반 총장은 강한 호소와 권고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하지만 당사자들이 반발할 경우에 유엔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유엔 평화유지군의 운영은 전적으로 그의 지휘 하에 있다. 유엔 평화유지군의 규모는 11만 3천여 명이며(이는 15년 전에 비하면 2배의 숫자다) 이들은 세계 곳곳에서 18가지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에 있었던 일 가운데서는 콩고 동부에서 발생한 분쟁을 들 수 있는데, 이때 유엔 평화유지군은 민간인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에도 애를 먹었다.

• 관리능력: 2점 (*10점 만점)

반 총장은 고립되어 있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 한국인으로 구성된 측근 비서진에 의해 둘러싸여있다. 상위 직원과의 소통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반 총장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since Mr Ban is not good listener), 이들의 전문성을 활용하지 못했다. 반 총장의 리더십과 명확한 목표의식을 기대한다.

요약하였듯, 『더 이코노미스트』의 반 총장에 대한 평가는 그가 여러 측면에서 엇갈린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재선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더 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인다.

이 기사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반 총장의 “관리능력”(Management skill)에 대한 평가이다. 반 총장은 전체 4개 항목 중 관리능력 항목에서 최하의 점수를 받았다. 그리고 “권력에 대한 진실성,” “평화유지” 등은 반 총장 개인의 능력 보다는 유엔이라는 국제기구가 국제사회 속에서 차지하는 근본적인 역할의 한계와 관련된다. 하지만 유엔 조직에 대한 관리능력은 반 총장의 능력에 의해 크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여겨진다.

반 총장은 좋은 경청자(good listener)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여러 언론들이 공통적으로 반 총장의 커뮤니케이션 방식과 주로 한국출신으로 구성된 반 총장 주변의 “이너씨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전체 유엔직원의 협조를 구하기에 힘들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다. 따라서 문제는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서 풀릴 수 있다. 좀 더 많이 듣고, 좀 더 넓게 들으라는 것이다. 반 총장은 이러한 주위의 지적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된다.